

위대한 인민사랑이 펼쳐진 함남땅의 희한한 온실바다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창건 기념일에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크나큰 선물인 세계 최고의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을 위하여 온 나라를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설레이게 하고 있다.

그 규모와 내용, 형식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온실농장 건설을 위하여 온 나라를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설레이게 하고 있다. 수백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000여채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어 장쾌한 경관을 이룬 온실농장의 전경을 신문과 방송으로 접한 온 나라의 각계층 인민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련포온실농장의 경관을 TV로 접하면서 우리 인민을

위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지극한가를 다시금 뼈대로 느꼈다.》,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저렇게 큰 온실농장을 인민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인민을 위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의 무한대한 세계가 저 가없이 펼쳐진 온실농장에 그대로 어려있다고 생각한다.》, 《련포온실농장에는 바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꿈과 이상이 집약되어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행복만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응지가 깃들여 있다.》...

온 나라 인민이 격찬해마지 않는 이처럼 희한한 세계 최대규모의 온실농장 건설기지, 새시대 본보기문화농촌이 동해기슭에 솟아날 수 있는것은 인민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크나큰 실험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둘어쳐보면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 증평온실농장건설을 작정하시던 그때 벌써 련포지구에 대규모온실농장 건설할 것을 구상하시었다.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이고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언제나 중대사항으로 관심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련포지구에 수만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농장 건설기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용교육장으로, 우리식 농촌혁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명실공히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하며 이를 기준으로,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실성있게 추진할 원대한 계획을 무리없이 실현하시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부전선의 중요군사기지를 함경남도인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현대적인 남새생산기지로 전환시키시기를 큰 결단을 내리시고 주제108(2019)년

4월 몸소 현지를 답사하시면서 대규모온실농장,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련포지구 대규모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두번째 해인 2022년의 주요국가건설정책과업들중의 하나로 련포온실농장건설이 정해지는데 맞게 련포지구에 나오시어 건설에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몸소 시공중, 건설중이 되시어 눈조차 뜨기 힘든 새창모래바람속에서 건설부지를 확정해주시고 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러시고도 련포온실농장 건설작업에 참석하시어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는데 이어 작공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과단추를 누르시었다.

이렇게 되어 련포온실농장 건설은 인민을 위한 가장 중대한 사업,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제1차적인 사업으로 되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소중히 새겨안은 인민군건설자들은 작공의 그날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백열전을 벌리었다.

하지만 올해는 력사에 료해없는 극난들이 공화국의 앞길을 걸음걸음 가로막았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봉쇄압박속에 돌발적인 악성전염병사태가 조성되고 거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드림없는 의지를 안으시고 최대비상방역기간에도 중요대사건들을 중단없이 내밀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지난 5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나라앞에 조성된 방위역위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시고 련포온실농장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제기일만에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그 사랑속에 련포온실농장건설은 힘있게 추진되고 건설중에서는 새로운 련포창조정신, 련포불바람이 일어나 불과 2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이 창조될 수 있었다.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된것이 그러도 기쁘시어, 당창건기념일에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만족하시어 완공된 련포온실농장을 또다시 찾으시고 몸소 준공식장에서 준공테이프를 끊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인민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령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속에 지난 기간 이 땅우에는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솟아났던가.

문수물놀이장, 미림송마구락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망시령스키장, 연풍과학자휴양소, 과학기술전당,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삼지연시,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류경안과종합병원, 육류자동병원...

이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훌륭하고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이면서도 선려적성, 선미학성이 철저히 보장된 기념비적건축물들에는 인민의 꿈과 이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꽃피워주시려는 철세위인의 용지가 비껴있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과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에 받들려 삼지연시가 인민의 이상도시로 전변되고 평양에는 1만세대의 대규모문화거리와 주제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융축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솟아났으며 련포지구에 세계 최대규모의 온실농장, 사회주의문화농장이 일떠설 수 있는 것이다.

생산적인 해도 100정보에 달하고 생산능력이 수만에 이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온실바다는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으며 각양각색의 소출,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대규모농장마을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문명과 행복의 세계는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무한대한것이다.

지금의 극난한 환경속에서도 인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통이 큰 목표와 휘황한 앞날을 설계하시며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과감히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은 그 어떤 격난도 과감히 뚫고헤치며 사회주의전진적발전의 길로 더욱 힘있게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농촌혁명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어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농촌문제해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것은 농촌을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게 개편시키기 위한 사업을 떠나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농촌혁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위원회에서 새 세계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위원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 농촌문제해결의 절박성과 변혁적의의를 심오히 분석평가하시고 공화국의 모든 농촌을

로동당시대에 어울리게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기 위한 웅대한 목표와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히신 농촌혁명강령에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와 필요성, 그 과업과 실현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로 정해주시었다. 다시말하여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 간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근본적인 개조변혁을 이룩함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촌혁명강령에서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그 승리를 위한 관건적요인으로 내세우시었다. 또한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이 상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제와 방법을 확립하며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정책적문제들을 제시하시었다. 그리고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문명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농촌혁명강령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힌 위대한 농촌건설강령이다. 또한 공화국의 모든 농촌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사회주의적으로 훌륭히 전변시켜 인민들의 세기적수명과 이상을 앞당겨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실천의 무기이다.

이 휘황한 농촌혁명강령이 제시된 올해에 공화국에서는 농촌혁명수행을 담보하는 농업생산력증대와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도처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농촌들에서 교육수준을 도시의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기 위한 사업과 수도의 문화, 로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문화를 지방과 농촌에 옮기려는 전과, 확대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선진문명을 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업들

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특히 시, 군들에서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사촌으로 만들려는 조선로동당의 농촌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농촌마을들을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문명이 반영되게 건설해나가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모든 농촌들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자기 지방의 얼굴이 달라지고 농촌의 어제와 오늘이 뚜렷이 대비되는 진보와 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며 바로 여기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진면모가 나타나게 된다는 확신을 안고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인 발전과 농촌진흥의 휘황한 전진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함성식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강행군

● **위민헌신의 발걸음**

불철주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휴식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 언제인가 일군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했을 때의 일이다.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수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조용히 위우시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자신께서 먼 앞장에서 관철해나가야 누가 대신해주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쉬임없이 걸으시는 현지지도의 길! 바로 그 길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조용히 위우시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자신께서 먼 앞장에서 관철해나가야 누가 대신해주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쉬임없이 걸으시는 현지지도의 길! 바로 그 길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조용히 위우시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자신께서 먼 앞장에서 관철해나가야 누가 대신해주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류경원을 찾으신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도가 90°C 되는 한중칸도 돌아보시었다. 건물안의 더운 공기만 해도 솟아 막힐 지경인데 순간에 땀방울이 내뿜는 한중칸안에서 유리벽체를 만져보시며 열손실을 철저히 막도록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원형구조도 보여주시며 물놀이와 물

소독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령실에는 들어가지 말아주시것을 일군들이 간절히 바랐건만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하시며 령실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그러시 후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